봉준호 "언어 장벽, 영화 통해 이미 깨졌다"

'기생충' 한국영화 최초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 "모든 게 '인셉션' 같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25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감독한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데 대해 "(언어의) 경계가 다 깨져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봉 감독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짜릿한 순간이었다"며 "처음 영화를 만들 때는 이런 순간까지 닥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해서 흥분되고 기뻤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생충' 인기 요인에 대해 "살면서 주변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많이 본다. 일상적,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라 친근하다. 그동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룬 영화와 TV 시리즈가 많았다"면서도 "스토리나 표현 방식이 새로워서인 것 같다. 스토리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5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한다. 그 언어는 영화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인터뷰에서 봉 감독은 "그 경계가 이미 다 깨져있었는데 내가 뒤늦게 이야기한 것 같다"며 "아시아 영화, 한국 영화가 이렇게 많이 후보에 오르고 박스오피스에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상태에서 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다"고 웃었다.

'기생충'이 언어 장벽을 낮췄다고 묻는 말에는 "장벽을 없애는데 공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 전체가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우리 영화가 그런 흐름의 혜택을 본 것 같기도 하다"며 "'시네마'라는 하나의 언어 속에서 그런 장벽이 천천히 극복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봉 감독은 데드라인과 인터뷰에서는 후보 지명에 대해 "'인셉션' 같다"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는 곧 깨어나서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전 아직 '기생충' 촬영 현장에 있고 모든 장비는 고장 난 상태고요. 밥차에 불이 난 걸 보고 울부짖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합니다."

데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는 '기생충'의 TV 시리즈 제작 결정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기생충'은 미국의 케이블 채널 HBO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진다. '빅쇼트', '바이스'를 연출한 애덤 매케이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아카데미 미술상 후보 '기생충' 촬영세트 시선 집중

오스카에서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뿐 아니라 미술상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영화 속 세트에 다시 시선이 모인다.

'기생충'은 13일(현지시간)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발표한 제92회 아카데미 미술상 후보에 올랐다. 이하준 미술감독과 조원우 세트 디자이너가 후보로 지명됐다. '기생충' 세트가 주는 수직의 느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정도로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영화가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만큼, 이야기는 전원 백수인 기택(송강호)네 반지하 집과 부자인 박 사장(이선균)네 저택에서 대부분 진행된다.

봉 감독은 "시나리오 쓸 때 부잣집에서의 동선을 미리 구상했다"고 할 정도로 미술에 신경을 특히 썼다.

봉 감독의 공간적 구상이 영화 속에 실현된 데는 이하준 미술감독 등의 공이 컸다. 이 감독은 "부잣집과 반대되는 반지하 집, 비가 오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 높은 곳의 부자 동네와 낮은 곳의 반지하 동네 등 대비가 가장 중요한 콘셉트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사장네 집은 봉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생각했던 평면도를 받아 내부 디자인을 하고 국내 유명 건축가들이 지은 집의 외형을 참고했다. 이 집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실에서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통유리 세 장을 끼워 넣었다. /연합뉴스

이준기·문채원, tvN '악의 꽃'에서 호흡

'악의 꽃'에서 부부로 출연하는 이준기(왼쪽)과 문채원.

배우 이준기(38)와 문채원(34)이 tvN 신규 드라마 '악의 꽃'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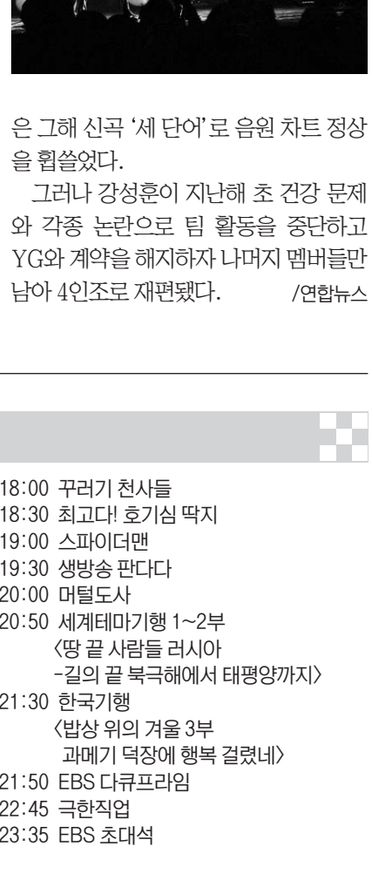
tvN은 14일 속이는 남편과 속는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멜로 '악의 꽃'에 이준기와 문채원이 주연 배우로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이준기는 잔혹한 과거를 숨기고 신분을 바꾼 남자 '백희성'으로, 문채원은 그의 과거를 추적하는 강력계 형사 여자 '차지원'으로 분한다.

연출은 '자백', '마더'의 김철규 PD가 담당하며 극본 집필은 신예 유정희 작가가 맡았다. '악의 꽃'은 tvN에서 올해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젝스키스 앨범 발매 … 3월초 컴백 콘서트

'올 포 유' 내고 본격 활동



복귀를 코앞에 둔 그룹 젝스키스가 앨범 발매 후 콘서트로 보폭을 넓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월 6~8일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젝스키스 2020 콘서트 엑세스'(ACCESS)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10월 관객 약 2만명을 동원한 '지금·여기·다시' 콘서트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여는 단독 콘서트다.

오는 28일 2년 4개월여만에 새 미니앨범 '올 포 유'(ALL FOR YOU)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앨범 활동에 나서는 셈이다.

1997년 '학원별곡'으로 데뷔한 젝스키스는 2000년 해체하기 전까지 '폼생폼사', '커플', '예감' 등을 히트시킨 원조 아이돌 그룹이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재결합한 뒤 2016년 YG와 계약을 맺고 새 앨범을 발매했다.

고지용을 제외한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강성훈, 장수원 5인조로 활동한 이들은 그해 신곡 '세 단어'로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그러나 강성훈이 지난해 초 건강 문제와 각종 논란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고 YG와 계약을 해지하자 나머지 멤버들만 남아 4인조로 재편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00 99억의 여자(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하자있는 인간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씽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날아라 슛돌이 뉴 비기닝(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루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벅스봇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 사랑(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쉿!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특집다큐 포구만리	00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개그 콘서트(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애코와 친구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즈
09:40 야옹멍멍 귀여워2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EBS 초대석
14:45 몰랑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카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엄마 까투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페파 피그(재)
16:40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8:00 꾸러기 천사들
18:3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머털도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땅 끝 사람들 러시아
-길의 끝 북극해에서 태평양까지〉
21:30 한국기행
〈밥상 위의 겨울 3부
과메기 덕장에 행복 걸렸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21일 丁巳)

☎ 010-9790-8237

子 36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필히 조처해야 한다. 48년생 듣고 접하다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60년생 겉과 속이 꽉 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72년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84년생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96년생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과실이다. 행운의 숫자 : 72, 07

丑 37년생 선험을 인식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49년생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1년생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73년생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놓치겠다. 85년생 가장 상식적인 방안만이 합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97년생 반추해 본다면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19

寅 38년생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하겠다. 50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62년생 안심하고 지내도 된다. 74년생 뜻이 있다면 주장해야 해결된다. 86년생 국지적인 것 보다 전체적인 것에의 관심이 요구 된다. 98년생 무궁무진한 변화의 면모이니 기민하게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71, 63

卯 39년생 의연한 자세로 임하라. 51년생 주의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63년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다. 75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87년생 차분하게 지켜본 연후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99년생 균형과 실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22

辰 40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52년생 단단히 마음먹고 있어야겠다. 64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언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76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88년생 희망해 왔던 바대로 척척 맞아 떨어질 것이다. 00년생 복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행운의 숫자 : 15, 66

巳 41년생 역량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 해야만 한다. 53년생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날 수도 있다. 65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임한다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77년생 분주한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여러 가지 보인다. 89년생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01년생 겉모습에 현혹 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75

午 42년생 치우친다면 부조화에 따른 경색 국면에 이른다. 54년생 돈이 들어오리라. 66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생산적인 관계로 이끌 것이다. 78년생 자기 주관이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90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02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수순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92, 37

未 31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43년생 융보다 길이 더 많다. 55년생 원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자. 67년생 서두를수록 시원스런 진척을 보이겠다. 79년생 복잡한 성향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91년생 사세부득이 그렇게 됨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9, 42

申 32년생 바야흐로 길경을 맞이하게 되리라. 44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능률적이다. 56년생 풍성한 성과의 환희가 있다. 68년생 발전적인 방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80년생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성국이로다. 92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77, 27

酉 33년생 신중할 필요가 있다. 45년생 혼탁함에서 벗어나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겠다. 57년생 금전적 가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69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으로 승부를 걸자. 81년생 뜻밖의 일에 관련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93년생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 한다. 행운의 숫자 : 65, 79

戌 34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도다. 46년생 변화가 생기면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다. 58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70년생 상대가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 주어야만 효과적이다. 82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94년생 대양은 비에 젖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8, 35

亥 35년생 서로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47년생 노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진전이 있으리라. 59년생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말고 융통성을 보인다면 부가적 이익을 꾀하리라. 71년생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 83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느니라. 95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3, 56